14-2 // 하이퍼리얼리즘 : 눈속임회화. 실제같이 보이게 속인다.

1970년대 시작되어서 전세계에 빠르게 파급. 한국도 70년대 중반 되면 한국 극사실주의가 굉장히 유행(80년대에). 팝아트에 뿌리.팝아트와 굉장히 유사. 사진이미지 사용. 사물의 즉자성(본 순간 사물을 떠올리게 한다). 동일한 모티브 반복적 사용. 시점 다양. 건조한 무감정. 객관적. 무엇보다도 대중소비사회와 산업사회를 상징하는 주제 보여준다는 점에서 하이퍼리얼리즘과 팝아트 연결됨. 포토리얼리즘이라 불림. 너무나 실제처럼 보인다는 측면에서 눈속임회화(옛날부터 아주 정교하게 그린 것을 지칭하는 용어)라는 용어도 사용. 미국에서 시작해 1960년대 말~70년대 유행한 사조.

두장이상을 가지고 그림 그리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함. 재현하고 다름. 사진은 밑그림, 구성, 배색등에 사용 되지만 리얼리즘 완성한다는 것은 화가의 몫. 사진을 이용하기 때문에 뭔지 모르게 원근이 있는 것 같고, 일루전(환영) .. 그와 같은 명암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평면을 기본으로 두고 시작. 또한 반짝거림과 뭔지모르게 아주 실제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이런 구성에서 추상성을 느끼기도 한다. 형식, 구성 등에서 모더니즘 미술 수용한다.

17) 맬컴 몰리(Malcom Morley, 1931-), <Amsterdam n front of Rotterdam> 1966 // 주제를 표면에서 추출했다. 엽서나 사진이나 그것을 보고 그 표면에서 추출. 전통적인 재현과 다르다(실제보고 그린 것x). 사진이 가지고 있는 평면성 표면을 추출되었다. 구상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구상. 형식과 구성 원리 등에서 모더니즘 미술을 수용한다.

척 클로즈 왈, 카메라의 시각을 자기가 따른다. 사진을 재현. 사람이 그리다기보다는 사진이 그렸다. 사진을 여러장 보고 그렸는데.. 화가의 입장이 들어간다면 시적 감성을 매개체로 집어넣는다.

척 클로즈는 사진을 좋아하는 것은 한 편의 시처럼 사진이 느껴지기 때문. 감성을 집어넣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25) 리처드 에스테스 <Double self-portrait> 1976, 18) 리처드 에스테스 <Williamsburg Bridge> 1987 // 쇼윈도를 바라보는 본인의 모습이 비친 것. 평면적인 것 같으면서도 평면적인 것 같지 않고.. 사진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실제 같..지만 실제는 아니고.. 이렇게 까지 반사가 되는 유리가 있을까? 어쨌든 굉장히 익숙해보이면서 한편에서는…. 자신이 가본 장소(추억, 감성이 있는 익숙한 장소)만 그린다. 그러면서도 뭔가 초점이 없는 선명한 쇼윈도를 보여주는 낯선 이미지

15) 척 클로즈 <Linda> 1975-76 // 17c 루벤스의 초상화, 앵그르 <드 브로그리 왕자비의 초상> 1853년경과 비교.

척 클로즈 ->하이퍼 리얼리즘의 대표적 화가. 하이퍼 리얼리즘 특징 – 클로즈업.

클로즈업 시켜서.. 자기 그림은 머리(head)를 그렸을 뿐이다. 인성을 하나의 물성의 차원으로 그렸다. ((사물의 현조))

인물 개개인이 갖는 지위, 내적 성격 묘사 (전통적 초상화)

But 중립적. 머리라는 정물을 그림. 하나의 정물로서 선택된 머리를 그림.

익명의 사람들은 현실에 대해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여줄 뿐이고, 개인의 개성 보여주기 보다는 하나의 사물처럼 보여줌(중립적). 전통적인 초상화와 다른 점이다.

18) 리처드 에스테스, <최상의 철물> 1973 // 뭔가 낯선 느낌.. 실제 같기도 한데.. 멀리 있을수록 흐려져야 하는데 계속 선명.

레오나르도 다빈치 - 회화는 세상을 비추는 거울- 원근법, 명암법🡺회화는 현실인척 함

그런데 거울은 두가지 기능 : 반사, 흡수. 이 기능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으로 나르시스의 샘.

자기 모습 비친 거 보고 반해서 물 속에 뛰어들어 죽고 수선화로 핌.

거울보다 보이는 모습 다름. 그러니까 거울은 복제임은 틀림 없으나 완전히 실제하고 일치하진 않는다.

하이퍼리얼리즘은 실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세상을 복제하면서 스스로 세상(실재)이 되기를 원한다. 복사가 원본하고 절대로 동일할 순 없다.. 실재하고 지나치게 닮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재와 멀어지면서 스스로 원본이 되었다. 스스로 현실이 되었다.

그래서 르네상스 회화가 세상을 비추는 거울로서 세상인 척 했다면, 하이퍼리얼리즘은 복제를 통해 실재가 되고자 함.(너무 닮아서 오히려 멀어저버린..)

하이퍼리얼리즘은 원본에서 이탈해서 스스로 원본이 되고자 한다->시물라크르(사전적 의미는 모방. But 장 보드리야르는 새로운 실재로서 재해석). 하이퍼리얼리즘을 흔히 시물라크르(새로운 실재가 되었다)로 설명.

르네상스 시대에는 원근, 명암법 만들어 현실 복제하려고 노력->현실인척, 세상인척하려고 함... But 하이러리얼리즘은 세상이 되고자 한다.

재현의 의미 변화 : 세상을 반사->스스로 세상이 되는 것

22) 존 캐시어(John Kacere, 1920-1999) <마샬 D> 1972 // 여자의 하체. 오히려 실재를 잃어버리게 하고, 새로운 실재로서 보이게 함. 너무나 재현했으나 클로즈업했으니 실재같진 않다. 실재와의 과도한 닮음. 실재를 잊게 만듦. 스스로 실재가 되게 한다.

23) 존 캐시어 <Valerie 2> 1989, Oil on Canvas // 피부가 굉장히 감미로움. 신체의 한부분 클로즈업 함으로써 실재를 떠올리나 실재가 아닌 것 같은 낯선 느낌 들게 함.

24) 앵그르(Jean-Auguste-Dominique Ingre, 1780-1867) <오달리스크> 1814 // 여인의 전체적인 한 누드. 23과 공통점. 피부의 감미로움. 논리적 정돈.

하이퍼리얼리즘은 모더니즘 미술의 원리를 수용하면서도 고전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아주 엄격하고 체계적인 구성. 정교하고 엄격한 형태. 논리적 구성. 정돈된 조형성(흐트러짐x)->고전주의에 기본을 두고 있다.

26)돈 에디 <Jerome’s Dilemma> 1985-86 // 고전의 것을 현대의 사물과 배치. 고전을 염두함. 특별히 앵그르를 따른다고 함. 정교하고 고전주의적 시각가짐.

28) <빅풋 크로스> 1977-78, 27) 톰 블렉웰 <Market basket Harley> 2006, 32) 톰 블랙웰(Tom Blackwell) //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 과도한 반사광.

흔히 볼 수 있는 사물들 클로즈업하니까 굉장히 기념비적으로 보임. 일상성🡪기념비성으로 전환하는 특징. 일상의 평범한 것을 특별을 가진 주체로서 보이게 함. 일상성에서 이탈해서 기념비성으로 보이는 이유가 클로즈업!!!! 과도한 만큼 빛.. 반사광!! 마치 기념비적이고 형이상학적 사물로 전환이 됨.

극단적으로 정확한 정교한 묘사는 현실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신비감 부여.

그러나 마치 시간이 정지되어있는듯한 영원한 그 무언가처럼 보이게 함.

33) 오드리 플랙(Audrey Falack, 1931-) <Strawberry Tart> 1974 // 클레즈 <생선이 있는 정물, 아침식사>

34) 윌리암 마이클 하넷(William Michael Harnett, 1848-1892), 1888 / 오드리 플랙(Audrey Falack, 1931-) <Strawberry Tart> 1974

35) 윌리암 마이클 하넷 <Mortalite et Immortalite> 1876/ 오드리 플랙(Audrey Falack, 1931-) <Strawberry Tart> 1974 // 둘 다 굉장히 정교하게 묘사.

옛날 그림의 눈 속임. 프랑스는 예전부터 눈속임 회화 존재. 미국에서 하면서 하이퍼리얼리즘, 포토리얼리즘..

옛날그림은 시간이 응결(멈춘 것 같음)된 것 같은 느낌 준다. 죽은 것이 시간이 멈춘 것.. 죽음과 의미를 같이 함.

1970년대 하이퍼리얼리즘은 살아있는 것이 특징. 일상성에서 이탈해서 기념비적인 것으로 나아가지만 살아있는 것. 일상의 위대함 보여줌. 죽은자의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 일상의 위대함 보여줌.

하이퍼리얼리즘은 너무 정교해서 굉장히 촉각적이다. 촉각적이면서 만지고 싶다는 것🡪시각을 통해서 본인의 욕망 개입. 시각에서 감각으로 넘어가는 특징. 하이퍼리얼리즘은 성폭력을 유발한다.(사람들은 만지고 싶어하고, 그림은 만져지길 원하지 않으므로..?). 시각에서 욕망이 개입된다.

**회화와 사진의 차이**

36) Birgit, 1973 (사진) / IL Y A LONGTEMPS QUE JE N’AVAIS PAS CREVE, 1974 //

사진은 과거 시제. 사물이 거기에 있었다. 🡪노잼.. 사진은 죽음의 기호이다.

회화는 거기에 지금 있다. 그래서 유혹적이고 재미있다.

38) 제라르 쉴로써(Gerard Schlosser, 1931-), TOUT EST FAUX(모든 것은 거짓이다), 1989 // 하이퍼리얼리즘 전세계적 유행. 프랑스는 신구상주의.. 1960년대 극좌파주의적인 정치성 가지고 시작 197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 정치성에 멀어지게 됨. 지루.. 하이퍼리얼리즘에 합류.

창문을 바라보는 듯한데 그림 속의 그림이면서 이 것조차도 거짓. 전부 거짓.

39) 듀안 핸슨(Duane Hanson, 1925-1996) <오토바이 사고> 1967 / 듀안 핸슨 <거리의 폐인들< 1969 // 사람을 실제로 주물떠서 실제 옷을 입히고 전시. 평범한 일상속에서 지쳐있는 사람의 모습. 우리와 똑 같은 사람.. 우리한테 새로운 느낌을 갖게 함. 회화든 조각이든 대중문화 산업시대 도시를 배경으로 함. 복사 복제 통해 시물라크르.. 한 명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41) 듀안 핸슨 <관광객 1> 1970 / 듀안 핸슨 <관광객 2> 1970 //

42) 듀안 핸슨 <웨이트리스 리타> 1975 / 듀안 핸슨 <청소부> 1988 / 듀안 핸슨 <보디 빌더> 1995 //

43) 알프레드 레슬리(Alfred Leslie, 1927-) <에델 무어의 생일> 1876 / 필립 펄스타인(Pilip Pearlstein, 1924-) <흔들의자의 누드> 1977-78

44) 존 드 안드레아(John De Andrea, 1941-) <연인> 1978 / 존 드 안드레아 <미술가와 모델> 1980 // 고전주의적인 이상미 부각. 하이퍼리얼리즘은 고전주의적 시각 가짐.

하이퍼리얼리즘 : 팝아트와 특징 공유. 사진을 이용. 시물라크르 원리 추구. 일상성을 기념비성으로. 인간의 욕망 개입.